

#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이 어머니됨에 미치는 효과

채현주<sup>1</sup> · 김 수<sup>2</sup>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sup>1</sup>,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정책연구소 부교수<sup>2</sup>

## Effects of Maternal Role Practice Education on Becoming a Mother

Chea, Hyun-Ju<sup>1</sup> · Kim, Sue<sup>2</sup>

<sup>1</sup>Part-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p>2</sup>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Nurs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ducation and practice of the maternal role and becoming a mother using the concepts of self-confidence in caring, maternal attachment, and maternal identity. **Method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was used. Data was collected with the use of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November 2007 to April, 2008. A total of 54 women at a *Sanhujoriwon* (postpartum care center)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26 women (Nov-Dec), whereas the control group had 28 women (Feb-Apr). Education and practice on the maternal role was given individually and consisted of explanations, demonstrations and practice on breast feeding (day1 to 3), maternal attachment (day 8 to 9), bathing (day 10 to 11) and infant healthcare (day 13 to 14).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education and practice on the maternal role while the control group received routine education only. **Results:** Data collection was done using pre and post questionnaires at admission and fourteen days later.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in self-confidence in caring ( $t=-3.31, p=.002$ ) and maternal identity ( $t=-2.16, p=.036$ )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Education and practice on the maternal role and being a mother was an effective intervention in increasing self-confidence in caring and maternal identity.

**Key Words:** Role, Practice, Education, Postpartum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산욕기 산모는 진통과 분만의 힘든 노력 후에 심리적, 생리적으로 재적응해야 될 많은 일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어머니됨(becoming a mother)이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여성의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 자신에게는 발달과 성숙의 기회이며 아기에겐 성장발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기간으로 여성건강간호 영역에서 어머니됨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인

지되어 왔다(Mercer & Walker, 2006).

어머니됨이란 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유한 현상으로, 어머니 역할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되면서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관계 및 아기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을 통하여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Mercer, 2004). 어머니됨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어머니됨의 지표 또는 구성요소에 대해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Mercer (2004)는 어머니됨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는 아기를 돌보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의 아기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주요어:** 어머니 역할, 실습, 교육, 산욕기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Su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250 Sungsan-no,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2228-3276, Fax: 82-2-392-5440, E-mail: suekim@yuhs.ac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from Yonsei University.

투고일: 2011년 1월 28일 / 1차심사완료일: 2011년 3월 1일, 2차심사완료일: 2011년 3월 2일 / 게재확정일: 2011년 3월 2일

따라서 어머니됨이란 어머니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아기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모애착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됨은 본능적이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역할에 대한 학습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Lee, 1998; Mercer, 2004).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확대가족에서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생생한 역할 모델과 정서적 지지 체제를 통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식, 기술 및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다음 세대인 자녀를 가르쳐 어머니가 되는 준비를 시켰으나, 오늘날의 핵가족 하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단절되고 있다(Kim, 2006; Lee, 1998). 또한 분만 후 병원에 재원하는 기간이 짧아 어머니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교육을 한 다하더라도 일부 내용에 대해 비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Cho, Lee, & Lee, 1999). 이로 인해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어머니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머니로 하여금 무기력함, 불충분함, 죄의식, 상실감, 분노, 모호함 등을 느끼게 한다(Mercer, 2004; Mercer & Walker, 2006). 이는 어머니됨을 지연시키고 스트레스나 우울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하며, 자녀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경향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자녀의 신체적 사회적 발달 지연을 초래하게 된다(Beck, 2001; McGrath, Records, & Rice, 2008). 따라서 산욕 초기 산모를 대상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어머니 역할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Kim, 2006; Ryu, Chang, & Han, 2003), 이를 통해 원만한 어머니 역할 적응을 통한 어머니됨을 돕고 나아가 자녀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어머니 역할교육은 소책자나 비디오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설명, 인형을 이용한 시범, 인형을 이용하거나 신생아를 데리고 직접 실습해보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이 신생아 돌보기 지식이나 자신감, 모애착, 어머니 정체성 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Kim, 2006; Oh, Sim, & Kim, 2002; Ryu et al., 2003), 교육으로 인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기도 하여(Joo, Seo, Lee, & Kim, 2001; Lee, 1998)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Jang (2005)은 어머니됨의 주요 요소인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은 정보 전달 위주의 단기간의 교육은 효과가 없으며 시범과 실제 실습을 통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실습교육을 실시한

선행연구들은 실습교육을 받은 산모는 실습교육을 받지 않은 산모에 비해 신생아 돌보기 지식 및 자신감, 양육행위 정확도, 어머니 정체성 등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Jang, 2005; Kim & Jeong, 2007; Seo, 1998), 이는 설명이나 시범 등의 일방향적인 교육이 아닌 직접 실습을 포함하는 쌍방향적인 실습교육이 효과적임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 역할교육이 산욕 초기 산모의 어머니됨을 도와주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 역할을 산모가 직접 실습해보게 하는 실습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습교육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분만 후 병원 재원기간 동안 1시간 정도 소요되는 1회의 산모교육은 실습교육을 하기에는 부족하며, 모자동실이나 모유수유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퇴원하게 되므로 병원 재원기간 동안 어머니 역할을 실제로 해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모들이 평균 2주 정도 재원하므로 시간적 제약이 적을 뿐 아니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모자동실이나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은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하기에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산모가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기 전에 아기를 돌보는 방법들을 배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연습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므로(Lee, 2006), 실습교육을 실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머니 역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Cho, Jung, & Paik, 2000), 200여개의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검색 및 몇몇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해 본 결과 2주 단위로 짜여진 집단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머니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각 주제에 대해 정해진 요일에 1시간 정도씩 교육하고 있었으며, 일부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 목욕에 대해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병원에서 어머니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서 한꺼번에 1시간 정도 실시하는 산모 교육에 비해 어머니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한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Song, Chang과 Kim (2008)은 산후조리원에서 어머니됨을 도와주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의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교육 만족도가 낮으며(Cho et al., 2000), 퇴원 예정 산모의 10.7%만

이 신생아 돌보기에 대해 자신 있다는 보고는(Cho, 2002), 산후조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어머니 역할교육이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후조리원의 특성을 반영한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교육이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의 어머니됨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며, 나아가 산후조리원 산모를 위한 간호중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산후조리원의 특성을 반영한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이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의 어머니됨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이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이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이 어머니 정체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3. 용어정의

### 1) 어머니됨

어머니됨이란 어머니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아기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아기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며(Mercer, 2004),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모아애착, 어머니 정체성을 의미한다.

## 4.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산후조리원 입원 시보다 퇴원 시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산후조리원 입원 시보다 퇴원 시 모아애착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산후조리원 입원 시보다 퇴원 시 어머니 정체성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원의 특성을 반영한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이 어머니됨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설계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전에 있는 A 산후조리원에 재원 중인 산모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의 참여를 동의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신생아와 같이 재원 중인 산모
- 재원 중 신생아에게 건강 문제가 없었던 산모
- 재원 중 건강문제가 없었던 산모
- 재원 기간이 2주인 산모
-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

연구대상자의 수는 연구결과의 검정력 확보를 위해 두 개 이상의 평균값을 비교할 때 필요한 표본수 산정 시 사용할 수 있는 Cohen (1988)의 표를 이용하였다. 유의수준  $\alpha = .05$ , 검정력  $1-\beta = .80$ , 효과크기  $= .40$ 으로 정하여 Cohen (1988)의 표에서 확인한 결과 한 개 집단에 필요한 표본수는 26명이었으나, 중도 탈락자를 대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30명씩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자 중 건강문제 발생으로 인한 조기퇴원과 사후 조사 누락으로 실험군은 4명, 대조군은 2명이 탈락하여,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은 실험군 26명, 대조군 28명으로 총 54명이었다.

### 3. 연구도구

#### 1) 실험처치: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은 모유수유, 모아애착, 목욕, 아기 건강관리에 대해 개별 산모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설명과 시범을 보인 후 산모가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는 개별 교육을 의미한다.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은 입원 당일 오후에 1

회, 입원 2일과 3일째의 오전과 오후에 1회씩 총 5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유실과 산모방에서 실시하였다. 1회 교육 시에는 수유 전에 연구자가 아기를 데리고 젖 물리는 방법과 수유 자세 및 방법에 대한 설명과 시범을 보인 후 산모에게 수유하도록 하였으며, 수유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점을 교정해 주었고, 수유 후에는 트림시키기에 대한 설명과 시범을 보인 후 산모에게 직접 해보도록 하였다. 수유를 마친 후 아기를 신생아실에 보내고 산모와 산모방에 가서 유방 마사지 및 유축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2~5회 교육 시에는 연구자의 시범 없이 수유를 하도록 하면서 수유 시 어려워하는 점이나 잘못된 점을 교정해 주었고, 수유를 마친 후에는 수유 시 문제점 및 대처법, 수유보조용품 사용법 및 관리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모유수유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지 질문하게 하였으며, 모유수유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제공하였다.

모아애착에 대한 교육은 입원 8일과 9일째에 1회씩 총 2회 실시하였으며, 수유실에서 모유수유가 끝난 후 실시하였다. 1회 교육 시는 모아애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아기에게 말하기, 아기 울음이나 행동에 반응하기, 스킨십하기 등에 대해 연구자가 시범을 보인 후 산모로 하여금 직접 해 보게 하였으며, 2회 교육 시는 연구자의 시범 없이 산모로 하여금 직접 해 보게 하였으며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산모를 지지하고 격려하였다.

목욕 교육은 모의 실습교육으로 입원 10일째과 11일째에 각 1회씩 총 2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모방에서 1회 교육 시에는 인형, 2회 교육 시에는 아기를 데리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1회 교육 시에는 ‘목욕 전 준비’, ‘목욕시키기’, ‘목욕 후 간호’에 대해 연구자가 인형으로 먼저 모의시범을 보인 후 산모로 하여금 해보게 하였다. 2회 교육 시에는 아기를 데리고 하였으며, 연구자가 ‘목욕시키기’에 대해서만 시범을 보인 후 산모로 하여금 ‘목욕 전 준비’, ‘목욕시키기’, ‘목욕 후 간호’를 해보도록 하였다.

아기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은 퇴원 전날인 입원 13일째와 퇴원 당일 오전에 각 1회씩 총 2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모방에서 아기를 데리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1회 교육 시에는 체온과 체중 측정에 대해 아기를 데리고 연구자가 시범을 보인 후 산모로 하여금 직접 해보게 하였으며, 수유 및 배변양상 기록지 사용법을 설명한 후 직접 기록해 보게 하였다. 신생아에 흔히 나타나는 이상증상 및 간호, 병원 방문 증상에 대해서는 소책자를 이용하여 설명하였고 인터넷 정보 선택 및 활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2회 교육 시에는 연구자의 시범 없이 산모로 하여금 직접 해보게 하였다. 교육 시간은 교육 내용에 따라 1회에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Table 1).

**Table 1.** Maternal Role Practice Education Program

Topic	Contents	Tools	Time	Frequency
Breastfee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reastfeeding: positions, latch-on, burping, frequency &amp; duration</li> <li>Problem &amp; management: milk insufficiency, nipple confusion, breast engorgement, breast massage</li> </ul>	Booklet Nipple shields Breast shells Spoon feeding bottle Supplemental nursing system	30~60 min	5 times Day 1, afternoon Day 2, morning Day 2, afternoon Day 3, morning Day 3, afternoon
Attach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efinition</li> <li>Importance</li> <li>Intervention: baby massage, skinship, ...</li> </ul>		30 min	2 times Day 8 Day 9
Bath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eparation</li> <li>Bathing</li> <li>Nursing after bathing</li> </ul>	Booklet Doll Cotton swab Baby nail scissors	30 min	2 times Day 10 Day 11
Health c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ealth check: temperature, weight, feeding pattern, ...</li> <li>Health management: signs &amp; symptoms, care</li> <li>Use of internet information</li> </ul>	Booklet Thermoscan Daily log on feeding/ bowel movement	30 min	2 times Day 13 Day 14

2)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은 Lee (1987)가 번안한 Pharis (1978)의 Self Confidence Scale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Pharis (1978)의 Self Confidence Scale은 5점 척도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립 응답을 피하기 위해 4점 척도로 수정하였으며, 일부 문항을 제외하거나 추가하여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정된 도구는 간호학과 교수 5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산모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점수범위는 최저 21점에서 최고 8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생아 돌보기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198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였다.

3) 모애착

모애착은 Han (2001)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Muller (1994)의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4점 척도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26점에서 최고 10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an (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4) 어머니 정체성

어머니 정체성은 Koh (1996)가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Walker (1977)의 Myself as Mother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Myself as Mother는 어머니로서의 자기에 대한 개념을 뜻하는 형용사를 서로 반대어가 되는 낱말로 짝을 지워 양극에 대립적으로 위치하게 한 11문항의 7점 척도이나, 예비연구에서 산모들이 응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두 낱말 중 산모들이 더 쉽게 이해하는 낱말을 선택하여 1점에서 7점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수정된 도구는 간호학과 교수 5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산모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점수범위는 최저 11점에서 최고 7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정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oh (199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4. 연구진행

본 연구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비연구, 실험군 자료수

집, 대조군 자료수집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사전에 병원관계자 및 산후조리원 관계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자료수집 시 산모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 결과의 익명성 보장,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사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은 어머니 역할 및 어머니 역할교육 요구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고찰, 산후조리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어머니 역할교육에 대한 인터넷 검색, 일개 산후조리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어머니 역할교육에 연구자가 직접 참석하여 관찰한 결과 및 재원 산모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개발하였다.

인터넷 검색 결과 산후조리원에서는 2주 단위로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주제에 대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설명 위주의 집단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일부 산후조리원에서는 퇴원 전 아기 목욕에 대해서만 1회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들은 어머니 역할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은 반면 교육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므로 산후조리원 산모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Cho et al., 2000), 인터넷을 통해 육아와 관련된 광범위한 지식이나 정보를 문서,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설명 위주의 교육은 산모의 교육 요구도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 면담에서도 산모들은 직접 실습해보는 교육을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산모의 교육 요구도는 분만 후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Sim, Koh, & Lim, 2002),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요구도가 높은 내용에 대해 우선적인 비중을 둔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Cho et al., 2000),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 면담 결과 2주 단위로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주제에 대해 교육하는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은 분만 후 서로 다른 시기에 있는 산모들의 교육 요구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산모들은 산후조리원 입원 초기에는 재원 기간 동안의 주된 어머니 역할이지만 병원에서 제대로 해 보지 못했던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았으며, 퇴원 무렵에는 퇴원 이후부터 혼자 해야 하나 산후조리원 재원 기간 동안 해 보지 않았던 아기 목욕과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그러나 2주 단위로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주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입원 초기에 목욕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퇴원 무렵에 모유수유에 대해 교육을 받

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요구도가 높은 내용이 아니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산모들도 있었으며, 교육시간이 수유나 면회객 방문 등과 겹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산모들도 있었다. 따라서 개별 실습교육을 실시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재원일에 따른 교육 요구도를 반영하여 입원 초기인 1~3일에는 모유수유, 퇴원 무렵인 입원 10일과 11일에는 아기 목욕, 퇴원 전날과 퇴원 당일에는 아기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모아애착 증진을 위한 교육은 입원 후 1주일 정도가 지나고 모유수유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적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입원 8일과 9일에 실시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실습은 산모 자신의 아기를 직접 데리고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산후조리원 산모를 대상으로 한 Kim과 Jeong (2007)의 연구에서는 산모들이 자신의 아기가 연구대상이 된다는 데 대해 거부감이 심해 인형을 이용하였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를 산모 면담에서는 산모들이 자신의 아기를 데리고 직접 실습해보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은 수유시간을 비롯하여 산모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아기와 함께 있을 수 있으나, 자연스러운 교육을 위해 수유 시 또는 수유 직후 아기와 산모가 함께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1회 이상의 추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1회의 교육이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으며(Mercer & Walker, 2006),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하지 못했거나 모르는 내용에 대해 추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Ryu et al., 2003).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이 평균 2주 정도 재원하므로 병원과 달리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1회 이상의 추가교육을 실시하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초안은 간호학과 교수 5인 및 산후조리원 간호사 2인에 의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 3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타당도 검정을 통해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 2) 예비연구

2007년 9월 1일에서 9월 14일까지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고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설문지를 완성하였고, 작성 소요시간을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산모 3인을 대상으로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프로그램의 용이성, 산모의 교육 내용 이해 정도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예비연구에서 아기목욕에 대한 산모들의 불안 정도가 높아 아기목욕은 인형으로 먼저 실습한 후에 아기를 데리고 실습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아기를 데리고 아기목욕을 실습함에 있어서도 욕조와 물이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목욕시키는 것처럼 해보는 모의실습까지만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산후조리원에 아기 목욕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모가 신생아실에 들어와서 아기를 목욕시키거나 아기를 산모방에 데리고 와서 목욕시켜야 하는데 산모가 신생아실에 들어오는 것은 감염의 우려로 산후조리원에서 거부하였고, 아기를 산모방에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계절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산모방과 신생아실의 온도 차이 및 아기 목욕을 능숙하게 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목욕시간이 길어질 경우 감기 등의 건강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산모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 3) 실험군 자료수집

실험군의 자료수집은 2007년 11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산후조리원 입원 당일 오전에 배부 후 당일 회수하였으며, 사전 조사를 위한 설문지가 회수된 것을 확인한 후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후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퇴원 당일 오전에 아기건강관리에 대한 2회차 교육을 실시한 후에 배부하였으며 퇴원 시 회수하였다. 실험군에게 실시한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위한 설문지 배부 및 회수는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실시하였다.

## 4) 대조군 자료수집

대조군의 자료수집은 2008년 2월 18일에서 4월 11일까지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산후조리원 입원 당일 오전에 배부 후 당일 회수하였으며, 사후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산후조리원 퇴원 당일 오전에 배부 후 퇴원 시 회수하였다.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위한 설문지 배부 및 회수는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실시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집단교육의 형태로 2주 단위로 짜여진 산후조리원의 기존 교육 프로그램만을 제공하였다.

##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모아애착, 어머니 정체성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chi^2$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모아애착, 어머니 정체성의 산후조리원 입원 시와 퇴원 시의 차이 비교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험군 26명, 대조군 28명으로 총 54

명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나이, 학력, 직업, 월평균 수입, 분만방법, 아기 성별, 출생 시 체중, 산과력, 아기 건강문제에 있어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모아애착, 어머니 정체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모아애착, 어머니 정체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 3. 가설검정

가설 1.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산후조리원 입원 시보다 퇴원 시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산후조리원 입원 시와 퇴원 시의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54)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6)	Cont. (n=28)	$\chi^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33.4±3.2	33.0±3.7	-0.33	.742
Education	Up to 3 year college	8 (30.8)	13 (46.6)	1.39	.238
	University or more	18 (69.2)	15 (53.6)		
Occupation	No	15 (57.7)	14 (50.0)	0.32	.571
	Yes	11 (42.3)	14 (50.0)		
Monthly income (10,000 won)	> 300	15 (57.7)	9 (32.1)	3.56	.059
	≤ 300	11 (42.3)	19 (67.9)		
Parity	Primi para	14 (53.8)	15 (53.6)	0.00	.984
	Multi para	12 (46.2)	13 (46.4)		
Delivery mode	NSVD	20 (76.9)	21 (75.0)	0.03	.869
	C/S	6 (23.1)	7 (25.0)		
Baby's sex	Female	7 (26.9)	10 (35.7)	0.48	.487
	Male	19 (73.1)	18 (64.3)		
Birth weight (kg)		3.3±0.3	3.4±0.3	1.86	.068
Baby's health problem at birth	No	23 (88.5)	25 (89.3)		.923 <sup>†</sup>
	Yes	3 (11.5)	3 (10.7)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NSVD=nor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C/S=cesarean section.

<sup>†</sup>Fisher's exact test.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실험군은 교육 후 8.81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1.18점 증가하여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31, p=.002$ ).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4).

가설 2.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산후조리원 입원 시보다 퇴원 시 모아애착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산후조리원 입원 시와 퇴원 시의 모아애착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실험군은 입원 시에 비해 퇴원 시 0.73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2.25점 감소하여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t=-1.25, p=.218$ ).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Table 4).

가설 3.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산후조리원 입원 시보다 퇴원 시 어머니 정체성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산후조리원 입원 시와 퇴원 시의 어머니 정체성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실험군은 입원 시에 비해 퇴원 시 퇴원 시 2.35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3.29점 감소하여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2.16, p=$

.036).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4).

## 논 의

본 연구는 산후조리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이 산육 초기 산후조리원에 재원 중인 산모의 어머니됨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은 산육 초기 산후조리원에 재원한 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과 어머니 정체성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교육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의 효과에 대한 가설 1 검증결과,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역할 대한 실습교육을 받은 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Jang, 2005; Kim & Jeong, 2007; Seo, 1998), 본 연구에서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은 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으므로 어머니 역할교육은 산모가 교육 받은 내용에 대해 직접 해 보게 하는 실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Self-confidence in Caring, Maternal Attachment and Maternal Identi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at Baseline (N=54)

Variables	Possible range	Exp. (n=26)	Cont. (n=28)	t	p
		M±SD	M±SD		
Self-confidence in caring	21~84	55.2±15.0	56.1±11.0	0.27	.791
Maternal attachment	26~104	93.8±9.2	95.7±11.5	0.66	.513
Maternal identity	7~77	53.0±10.6	56.0±12.2	1.42	.161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Changes in Self-confidence in Caring, Maternal Attachment and Maternal Identi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54)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26)			Control group (n=28)			t	p
	Pre	Post	Difference	Pre	Post	Difference		
	M±SD	M±SD	M±SD	M±SD	M±SD	M±SD		
Self-confidence in caring	55.2±15.0	64.0±11.3	8.81±7.8	56.1±11.0	57.3±10.3	1.18±9.1	-3.31	.002
Maternal attachment	93.8±9.2	94.5±9.3	0.73±5.6	95.7±11.5	93.4±12.6	-2.25±11.2	-1.25	.218
Maternal identity	53.0±10.6	55.4±9.9	2.35±6.0	56.0±12.2	52.7±10.6	-3.29±12.0	-2.16	.036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와의 비교에 있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측정 도구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 문항수가 달라 총점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후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의 정도나 교육으로 인한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교육의 효과 정도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방법에 있어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 모두 실습교육을 실시했으나 교육 횟수에 있어서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Kim과 Jeong (2007)은 1회의 실습교육만을 실시하였으며, Jang (2005)과 Seo (1998)는 1회의 실습교육과 각각 2회의 전화상담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Kim과 Jeong (2007)은 1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하면서 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향상은 교육 횟수보다 교육의 질 또는 방법과 관련이 있으며, 실습교육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더 크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Mercer와 Walker (2006)는 1회의 교육이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Ryu 등(2003)도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하지 못했거나 모르는 내용에 대해 추가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습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1회의 교육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산모들은 1회의 실습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의 산모들도 추가적인 실습교육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습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습교육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교육 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습교육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 뿐 아니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추가교육의 방법에 있어 Jang (2005)과 Seo (1998)는 1회의 실습교육 이외에 전화상담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므로, 실습교육 후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가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실습교육 후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선행연구

들에서도 각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Kim과 Jeong (2007)은 교육 4일 후, Seo (1998)는 교육 3주 후, Jang (2005)은 교육 1개월 후에 효과를 측정하였다. Kim과 Jeong (2007)이 교육 4일 후 효과 측정 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여 실습교육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으나, Seo (1998)와 Jang (2005)은 실습교육 후 2회씩의 전화상담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므로 실습교육 후 효과측정시기가 교육 3주 후와 1개월 후라고 하여도 장기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실습교육 시작 후 2주 후에 교육 효과를 측정하였으나 교육이 끝난 시점에서 2주 후에 측정된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효과라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습교육의 단기적인 효과 뿐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의 효과에 대한 가설 2의 검증결과,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모아애착의 변화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역할교육을 받은 산모가 교육을 받지 않은 산모에 비해 모아애착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한 선행연구(Ahn & Lee, 2004; Koniak-Griffin & Verzemnieks, 1991)와 상반되는 결과이나, 선행연구는 NICU에 입원한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Ahn & Lee, 2004)와 임부(Koniak-Griffin & Verzemnieks, 1991)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산후조리원 입원 시에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 모아애착은 104점 만점에 실험군 산모가 93.8점, 대조군 산모가 95.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Ahn과 Lee (2004)의 연구에서도 모아애착은 104점 만점으로 환산 시 사전 조사에서 실험군 산모가 95.2점, 대조군 산모가 97.7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Ahn과 Lee (2004)는 고위험신생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산육 초기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모아애착은 양호한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Han (2001)의 연구에서도 산후 2~4 일된 초산모의 모아애착은 97.9점으로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위험신생아가 아닌 신생아 어머니의 산육 초기 모아애착도 양호한 수준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및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산모들은 산육 초기 모아애착 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특별한 중재가 없어도 모아애착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재를 통해 증가할

수 있는 모아애착 정도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군 산모의 모아애착은 93.8점에서 94.5점으로 증가한 반면 대조군 산모의 모아애착은 95.7점에서 93.4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산후조리원 퇴원 이후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모아애착이 어떤 양상으로 변하는지를 파악하는 추후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의 효과에 대한 가설 3의 검정결과,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어머니 정체성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어머니 정체성이 더 많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Jang, 2005). 또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더 많이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Jang (200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어머니 정체성 뿐 아니라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과 어머니 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높을수록 어머니 정체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Kim, Hwang, & Hong, 1998), 본 연구 및 Jang (2005)의 연구에서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증가한 실험군에서 어머니 정체성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은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 정체성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 역할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선행연구들은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과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과 더불어 모아애착이나 산후우울 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연구들도 있었으나 어머니 정체성을 측정할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므로, 어머니 역할교육이 어머니 정체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후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Jang (2005)의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어머니 정체성이 증가하였으나 실험군의 어머니 정체성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은 어머니 정체성이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어머니 정체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 정체성의 변화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의 효과 측정을 위한 어머니 정체성 변화 뿐 아니라 산육기 산모의 어머니 정체성 변화 자체와 관련된 추후 연구가 실시될 필요성

도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 정체성은 어머니로서의 인지와 정서를 말하는 것으로(Walker & Montgomery, 1994),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에 의해 촉진된다(Zabielski, 1994). Koh (1996)는 산후 3~4일, 산후 4~6주, 산후 3개월의 어머니 정체성을 측정한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머니 정체성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Jang (200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은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에 비해 적은 편이기는 하나 어머니 정체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은 어머니 정체성이 56.0점에서 52.7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에서는 어머니 정체성이 증가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감소한 것은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낮은 대조군은 신생아 돌보기 활동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어머니로서의 자신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돌아보게 되면서 어머니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후 2~3주경에 사후 조사를 실시한 반면, Jang (2005)의 연구에서는 산후 4주경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고, Koh (1996)의 연구에서도 산후 4~6주에 2차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측정시기의 차이에 의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의 효과로써의 어머니 정체성의 변화 뿐 아니라 어머니 정체성의 변화 자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산육기 산모의 어머니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추후 연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머니 정체성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 역할교육이 이러한 어머니 정체성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은 산육 초기 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과 어머니 정체성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중재임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은 산후조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어머니 역할교육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산후조리원에서 실시하는 어머니 역할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주간의 재원기간 동안 매

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교육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추가교육은 소요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임상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산후조리원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산후조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머니 역할교육에 비해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화를 위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이 모아애착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습교육을 받은 산모들에서 모아애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Ahn, Y. M., & Lee, S. M. (2004). The effects of integrated NICU hospitalization education on maternal attachment, maternal self-esteem, and postpartum depression in the mothers of high risk infant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0*, 340-349.
- Beck, C. T. (2001). Predictors of postpartum depression: An update. *Nursing Research, 50*, 275-285.
- Cho, E. A. (2002). *Education needs and education satisfaction of users in the post-partum care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Cho, K. J., Jung, Y., & Paik, S. N. (2000). The educational needs and satisfactory about infant care of the mothers in the post-partum care center. *The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6*, 344-353.
- Cho, K. J., Lee, K. J., & Lee, O. J. (1999). The effect of educational program on caring-confidence and rearing attitude in mothers with newborn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5*, 84-96.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 Han, K. E. (2001).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self-esteem and maternal sensitivity with mother-to-infant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Jang, Y. S. (2005). Effects of a maternal role promotion program for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on maternal role strain,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maternal identity. *The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1*, 472-480.
- Joo, H. S., Seo, Y. J., Lee, K. S., & Kim, C. B. (2001). A comparative study of maternal satisfaction with the mode of newborn care education - Video tape vs. verbal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Quality Assurance in Health Care, 8*(2), 160-172.
- Kim, H. K., & Jeong, I. S. (2007). Effects of a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on newborn care confidence and behavioral accuracy of primiparas in a postpartum care cent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125-134.
- Kim, H. W., Hwang, M. S., & Hong, K. J. (1998). Primipara's maternal identity & self confidence for caring the baby during the immediate postpartum period.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4*, 65-77.
- Kim, T. I. (2006). Development and test of effectiveness of a prenatal parental role education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2*, 104-113.
- Koh, H. J.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strain and identity in first-time mothers with regard to employment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oniak-Griffin, D., & Verzemnieks, I. (1991). Effects of nursing intervention on adolescents' maternal role attainment. *Issues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14*, 121-138.
- Lee, E. S. (198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miparous' self confidence on the maternal role and the sensitivit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on the feeding contex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J. H. (1998). The effect of a childcare education for first-mothers on newborn care behavior and confidence in maternal rol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4*, 322-331.
- Lee, S. B. (2006). A study on the nursing needs and service satisfaction of postpartal women in the postpartum care center. *Inje Medical Journal, 27*, 77-86.
- McGrath, J. M., Records, K., & Rice, M. (2008). Maternal depression and infant temperament characteristic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1*, 71-80.
- Mercer, R. T., & Walker, L. O. (2006). A review of nursing interventions to foster becoming a mother.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Neonatal Nursing, 35*, 568-582.
- Mercer, R. T. (2004). Becoming a mother versus maternal role attainment.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6*, 226-232.
- Muller, M. E. (1994). Development of the prenatal attachment inventory.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5*(2), 199-211.
- Oh, H. E., Sim, J. S., & Kim, J. S. (2002). The effects of prenatal education on primiparas' perception of delivery experience,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maternal role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8*(2), 268-277.
- Pharis, M. E. (1978). *Age and sex difference in expectations for infants and the parenting among couples in a first*

- pregnancy and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USA.
- Ryu, K. H., Chang, K. H., & Han, S. S. (2003). Effects of maternity education before discharge on postpartum self-care and newborn baby care.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9*, 230-238.
- Seo, Y. M. (1998). The effects of education program on primipara's knowledge, confidence and accuracy of behavior in newborn ca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8*, 1060-1074.
- Sim, K. S., Koh, H. J., & Lim, K. H. (2002). A study on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mothers for the infant ca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6*, 287-297.
- Song, J. E., Chang, S. B., & Kim, S. (2008). Childcare stress, postpartum depression, and postpartum fatigue between who used and not used Sanhujori fac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2*(1), 33-45.
- Walker, L. O. (1977). *Investigating the semantic properties of two concept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Texas.
- Walker, L. O., & Montgomery, E. (1994). Maternal identity and role attainment: Long-term relations to children's development. *Nursing Research, 43*(2), 105-110.
- Zabielski, M. T. (1994). *Recognition of maternal identity in preterm and fullterm mothers*.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22*(1), 2-36.